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 마당 주민들이 나섰다

재취항 추진위원회 구성... ‘중단’ 강진-제주 간 화물선 재개 노력

항만노동자 1만여명·25톤 화물차 120여대 운행... 지역 활력 기대

강진항의 화물선 재취항을 위해 군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마당면 주민들은 지난 9일, 2017년 10월 이후 중단된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을 위해 정삼균전 강진군의회 의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산경영인 연합회장, 강진군수협 이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 추진위원회는 화물선 취항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관계기관·항로주변 어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진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250억원을 들여 2016년 3월 준공했으나 원활한 항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2017년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마당항에서 제주항까지 운행한 화

물선을 끝으로 운항이 잠정 중단됐다. 정삼균 추진위원장은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당면 주민들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물선이 재취항 길에 오르면 제주 서귀포·성산항과 강진항을 오가며 제주에서는 물, 삼다수, 굴 등을 선적하고 강진에서는 공산품 등을 선적

하게 된다. 접안료 등의 항만사용료와 연인원 1만여명의 항만노동자를 유지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25톤 화물차 120여대가 화물을 선적·하역하며 숙박업소와 식당, 일반상가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해양테저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군-진도교육청, 지역발전 업무 협약

무궁화 육성 보급·교육관광 명소화 추진 협력



진도군과 진도교육지원청이 최근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무궁화 육성·보급과 무궁화동산 교육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퇴색되어 가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사업과 연계해 행정과 교육이 함께, 지역사회발전을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 특히 양 기관은 무궁화동산 탐방, 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무궁화동산 시설물 정비와 상시 개방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진도타워, 조선수군병영체험장(예정)과 연계해 무궁화동산이 진도군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신안,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장관상’

기량향상 분야 수상

신안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 응모해 ‘기량향상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별도로 공영제 운영을 1월초부터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준공예정인 공영제 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시의회 협의, 공정회 개최 등을 거쳐 목표형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 수목 수형조절 실시

해남군은 천연고찰 두륜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지구 내 가로수 및 녹지 등 식재 수목에 대한 수형조절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두륜산 도립공원지구내에 가로수 생육을 방해하거나 도로 표지판 및 상가의 간판 시야를 가리는 수목, 인근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위험한 나무의 수형을 조절한다. /해남=김동주 기자

영암 ‘전남 최초’ 명예 청소년관장제 운영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청소년자치시대 ‘첫 발’



영암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명예 청소년관장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관장제는 ‘청소년을 이끄는 힘은 청소년에게서 나온다’는 가치

아래 청소년수련관에 명예 청소년관장을 두고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넓혀 청소년 중심 자치시대를 여는 첫 발걸음을 떼는 의미있는 활동이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수련관 SNS를 통해 모집한 제1대 명예 청소년관장은 단독후보로

출마한 영암여고 조혜원 학생이 공약 소개와 선거운동 끝에 청소년 자치기구 소속 선거인단 청소년 27명의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100%로 제1대 명예 청소년관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 선출된 제1대 명예 청소년관장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월례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조혜원 학생은 “이번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청소년들의 중요한 정책적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김명선 관장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명예 청소년관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영두 기자

목포,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영제와 장단점 비교·분석... 목포형 운영체계 마련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 용역’(이하 준공영제 용역)에 이어 오는 2023년 1월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이하 공영제 용역)을 병행 착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내년에 시작할 용역은 목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준공영제 용역을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시가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시는 준공영제 용역을 통해 내년 1월까지 굴곡·중복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목포형 준공영제

를 설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시내버스 노조파업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이달 말까지 시에 제시할 경영개선(안)과 연계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토론하기 위해 준공영제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별도 공영제 용역을 1월초부터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준공영제와 공영제 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시의회 협의, 공정회 개최 등을 거쳐 목표형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무안,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무안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은 마을회관관리도우미, 노노케어, 복지시설지원, 작은도서관 도서도우미 등 공익형 일자리대상자 168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공익형 참여 희망자는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지참해 남악신도시지원단 복지지원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여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달 27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 최종 인원을 선정·통보할 예정이며, 공익형 노인일자리 중 1월부터 11월까지 월 30시간씩 활동하고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군은 공익형 일자리를 포함해 사업비 77억 9000만원을 투입해 37개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210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안=박태연 기자



해남군

땅끝힐스카이워크